

‘가족학’ 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있나

세계 가정의 해 불구 출판량 의외로 적어...그나마 공동저작이 대부분

인류의 출현 이래 가장 먼저 형성된 집단은 사회학 의미에서 1차집단이라고 부르는 ‘가족’이다. 가족관계를 다룬 「결혼과 가족」(옥선화 외 지음, 하우)을 보면, 가족의 기원은 인간이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게 된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이 시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한다. 이렇게 형성된 1차집단은 수렵과 채집사회를 거치면서 농경사회로 정착했고 친족과 지역사회를 형성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 집단을 통치하는 국가가 생겨난 이후에도 가족집단은 그대로 유지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학은 19세기에 이르러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었고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족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인접분야에서 거시적 또는 미시적으로 가족을 연구하면서도 학문으로서의 정립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연구영역과 이론적 관점 및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과 자성을 거치면서 1983년에 비로소 가족학(famology)이라는 용어가 제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가족의 4분의 3 이상의 핵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넘어오면서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가족문제가 발생했다. 가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각한 사회문제와 궤를 같이 해 세미나 혹은 심포지움 등을 개최해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간간히 제시해왔다.

‘가족 문제’ 학문적 접근 활발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가족학 관련 도서는 번역서를 제외하고 보면, 단행본 10여 종 가량 된다. 이들 도서는 개인의 저작은 극히 미약하고 공동저작과 가족학 연구단체, 대학출판부 등에서 엮어 낸 책이 대부분이다.

본격적으로 가족학을 연구하는 단체로는 ‘한국가족학연구회’와 ‘한국가족학회’가 있다. 이들 연구단체가 엮어낸 책은 대부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한 것. 먼저, ‘한국가족학연구회’에서 엮어낸 책은, 「가족학」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이혼과 가족문제」 「맞벌이 부부의 가족문제」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등으로 도서출판 ‘하우’에서 출간한 논문집이다.

‘가족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경향 및 가족학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 「가족학」은 사회 변화과정에서 달라지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및 그 결과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그다음

90년대 들어 가족의 개념은

“결혼관계와 혈연관계가 있는

구성원들의 생활공동체”로, 의식주의

공동성이 갖는 생활문화 전반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학

연구자들은 현대계의 가족문제를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사회 경제적

전반에 걸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어지는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는 한국 가족학 연구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라는 학술 세미나에서 저소득층 가족이 처한 생활환경과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이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작용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은 비단 저소득층의 가족문제만이 아니라 이혼율 급증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학회에서는 「이혼과 가족문제」를 통해 이혼의 역사적,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며 이혼으로 인한 가족문제와 이를 최소화 할 방안이나 지원정책을 다루고 있다.

한국가족학 연구회(89년 창립, 회장 중앙대 가정관리학과 김양희)는 가정학 분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단체로, 월례 연구발표회, 가족상담자 연수과정, 학술세미나, 도시발간 등의 사업을 벌이는 단체이다.

또 하나의 가족학 연구단체인 ‘한국가족학회’(회장 서울대 인류학과 이광규 교수)는 작년년부터 정기적으로 기획도서를 내기로 결의하고 올 초 「현대가족과 사회」(교육과학사)를 출간했다. 가족학 연구총서의 제1권인 이 책은 가족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논문집으로, ‘가족’이란 단위를 독립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학회의 총무이기도 한 서울대 아동소비자학과 옥선화 교수는 “60년대는 농촌사회에 있어서의 가족문제를 다뤘으나 7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거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학회에서 앞으로 출간예정인 책은 두 권이며 이중에서 한권은 「현대가족과 사회」와



마찬가지로 논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또 한편의 책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족학을 설명할 예정에 있다. 78년에 창립한 이 연구단체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아동소비자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300여 명이 모여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연구단체에서 낸 가족관련 서적은 앞에 언급된 책 외에도 ‘한국사회사연구회’가 펴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문학지성사)이라는 논문집이 있다. 지금까지 가족학의 주된 연구경향은 가족 자체만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었으나 이 책에 수록된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선 기존의 통설과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학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가족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거시적으로 사회변동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가족구성원 다양해짐에 새로운 가족문제도

공동연구 저작에 속하는 책은 구성원들의 결혼과 더불어 형성되는 가족집단에 관계된 것으로, 「결혼과 가족관계」(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공저, 숙명여대출판부)와 「결혼과 가족」(옥선화, 정민자 공저, 하우)가 있다. 이들 책은 성인 남녀의 올바른 결혼과 확립과 가족생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곧 생활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공동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 가족계획, 가족법 개정운동의 타당성 등을 다루고 있어 결혼준비를 하는 사람과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코저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듯 싶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마지막 장에서 가족법 중심으로 가족생활에 적용되는 제반 법률에 관해서도 다룬다. 이 두권의 책은 가족관련 서적 가운데 그나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서술했다.

성인 남녀가 결혼이란 제도로 가족을 형성하면 거기에서 자녀가 생기고 가족 구성원이 다양해진다. 어느 한시기에 이르러선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가 소통되지 않기도 하며 사고, 질병으로 가족성원을 상실하는 때가 온다. 또 부모가 이혼을 하면 결혼가정이 생겨나고 계모나 계부가 등장하게 돼 가족들의 생활양식이 파괴된다. 이러한 가족구성원들의 문제를 상담자를 통해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 책으로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최외선 엮음, 성화사) 「가족치료」(하나의학사, 김중원 외 엮음)가 있다.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는 심리치료자와 임상심리학자인 페레즈가 행했던 가족상담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가족상담과 치료과정을 기술한 책들은 대부분 번역서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국내 저자들의 책으로 이 두권이 해당된다.

올해가 세계 가정의 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가족관계를 다룬 도서들의 출간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나마 예년에 비해 학술단체들의 행사가 빈번해 그 결과들이 책으로 엮여지고 있는 상황을 반갑다고 해야 할 듯. 대학교재나 이론서에 국한되는 이 책들은 출판사에서도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보다는 학술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 독자들이 손쉽게 골라서 읽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배은희 기자